

법회안내

천운스님(대운사 주지)는 6월 2일 오후 7시 대운사 부산포교원 현대불사상을 주재 특별법회. (051)647-8744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27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법당 다보법회. (02)703-0108

해광스님(법주사 주지)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정기법회 신중기도. 매일 음력 3일 오전 10시 신중 삼일기도 회향법회. 매일 음력 16일 오전 10시 미륵재일철하기도법회. (0433)43-3615

승중연스님(성주암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경전법회.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인동법회. 매일 음력 7일 오전 10시 연화법회.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거사법회. (02)877-7180

원중스님(강화보문사 주지)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일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032)933-8271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시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수의·금은전·천수다라니·경전 등 윤달 예수재용품 다양

업장소멸 의식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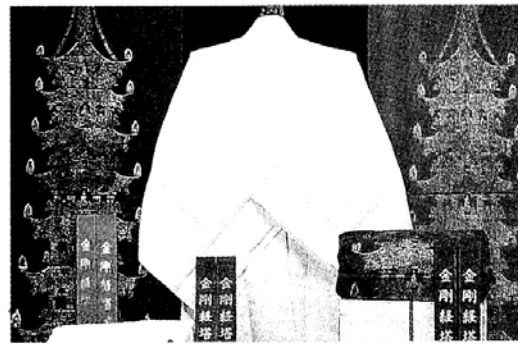
5월과 윤5월은 업장소멸 선업쌍기 발원의 달. 각 사찰이 5월 초하루를 맞아 입재하거나 입재중인 생전에수재에는 다양한 용품들이 준비된다. 이에따라 불구점마다 예수재용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예수재 용품으로는 지전·천수다라니·수다라니·돈다라니·수다라니·금강경·만관·수생경·말·금전·은전·금강탑다라니·봉투 등이 있다. 예수재봉행시 이들 용품은 부처님과 여러 성현들에 올리는 공양에 사용된다. 모형을 만들어진 금전 은전이나 지전등은 전생의 지은 업에 따라 빛을 갖는 의식에 사용되며, 각종 다라니와 경전은 죽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천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예수재 받은 금은전이나 경전등은 입종시 관속에 함께 넣기도 한다. 이렇게 부처님과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스스로 지은 복의 힘으로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생전에수재다.

윤달에 준비하는 것이 관례화된 수의에 대한 관심도 높다.

윤년에 부모님께 수의를 선물하면 무병장수 할 뿐 아니라 자손이 번창한다는 풍습 때문이다. 현재 교계 전문보급체와 각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의는 재질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다.

대한불교연화회는 마흔용 비유에 따라 40만원~280만원까지의 다양한 수의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춘천 연화정의사, 청주 연화불교상포장의사, 대구 지장불교상포장(주), 광주 불교농인회, 부산 관동손 마을 장의부 등 전국불교장외연합회에서도 수의를 판매한다. 가격은 대동소이하다. 불교TV 사업부도 수의 판매에 나서 국산삼베로 만든 남녀 수의가 각 1백40만원, 단품으로 삼베양말 6족 3만원, 삼베목수건 2만원 등의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각 사찰에서도 수의를 판매하고 있다. 봉은사의 경우 국산삼베 상품의 경우 90만원, 중품 60만원, 중국삼베 30만원 선이다. 보문지장회도 90만원대의 수의를 판매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내 백화점들도 윤년을 맞아 수의 매장을 잇따라 설치했다. 삼성프라자 태평로점의 경우 분관지하 패션존에 수의 코너를 마련했다. 수의 가격은 60만원~2백25만원까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등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거의 비슷한 가격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예수재 입재를 앞두고 조계종교원이 기획제작한 예수재 안내 소책자(생전에수재)와 감로출판사의(생전에수재의 공덕)도 법사비용으로 주문생산되고 있다.



◇윤달을 맞아 선보이고 있는 수의. 중국산, 국산삼베 등 다양한 종류와 40만원부터 2백8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각 사찰 생전에수재 일정

Table with 3 columns: 사찰 (Temple), 일정 (Schedule), 연락처 (Contact). Lists various temples and their specific dates for memorial services.

나의 수행일기



이종오

(변호사)

불교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항상 함께했다. 내가 불교에 심취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사찰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젊은 시절이었다. 나름대로 사법시험이라는 힘든 길로 발을 내딛던 나는 산사가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공부를 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부처님의 원만한 상유를 그리며, 고요한 산사에서 산만한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하루하루 절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민하던 중 법당 한편에서 예불의식이 수록된 경전을 발견했다. 그날밤 밤새도록 예불문을 탐독했다. 그 구절 한 구절속에 담긴 의미는 감동적이었다.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문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와 같은 환희심이라고 할까. 그날처럼 새벽예불시간이 멀게만 느껴진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다. 예불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음

의 점퍼 1벌을 훔치려다 체포된 것이다. 보통 그 정도의 범죄라면 훈방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피고인은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외양만 생각이 들어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전과 17벌이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전과배경이었다.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피고인은 할머니를 도와서 어렵게 초등학교인 줄 알고 자전거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자전거포 옆에 세워진 소형 오토바이를 주인 몰래 타다가 붙잡힌 것이 첫 전과였다. 13살이었던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1년동안 복역을 하게 됐다. 그후부터 피고인은 사소한 일만 자질러도 전과자로 분류되어 실형을 살아야만 했다. 17벌의 절도 전과자로 17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장기복역수인 그 피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중 천수경과 지장경 1권씩을 보

불법 되새기며 인연의 고리 풀이

목말라 하는 피고인 변호위해 노력

미하며 예불을 하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 마음도 어느때보다 안정됐다. 이같은 체험을 하면 서부터 경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속에서 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마음은 다스리는 법도 익혔다. 특히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내렸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죄나 벌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내가 당신을 감옥속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신은 나를 사회라는 감옥속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란 부처님 말씀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아름다움과 미움 등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체험이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을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난 인연의 고리를 부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죄와 벌은 어떤가'라는 것을 화두로 삼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너무 삼심하지 말라. 깨우치면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된다'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동봉했다. 그 후 답장이 왔다. 경전을 읽으면서 지난 세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자 지금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교도소를 방문하는 스님에게 마음을 위탁하게 됐다는 내용이였다. 그후부터 보내오는 편지의 내용은 무척이나 진지했고 사회를 중요하던 말도 점차 누그러들었다. 이 때문인지 나는 요즘도 시간만 나면 경전을 뒤적이고 책방을 찾는다.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또다른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이다.

게시관

인사

진각종 정유제

알림

△이웃돕기 하루차집=신행봉사 단체 반야산(회장 설정수)은 30일 전통다원 하나방에서 불우 이웃 돕기 하루차집을 연다. 오후 3시와 7시에는 불자개례시연도 갖는다. (051)803-1155

△무로도서대어=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용)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로도서대어를 실시한다. 이용신청서 작성후 일주일동안 이용할 수 있다. (02)817-8052

△무의탁노인들기 하루차집=회계사정년회(회장 김장수)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수유사거리 스카이라운지에서 무의탁 노인들기 하루차집을 개원한다. (02)990-5928

모집

△과학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6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어린이를 위한 과학교실을 연다. 일상생활과 과학을 접목한 수업내용으로 유치부

는 오후 2시~3시, 저학년은 3시~4시30분, 고학년은 5시~6시30분에 실시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료 및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02)852-0525

△선체조·다도교실·사찰요리=원효불교대학 문화센터에서는 선체조·다도교실·사찰요리 강좌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53)563-9154

△수화·점자교실=원심회는 제28기 수화초반과 점자반을 개강한다. 수화초반은 6월 15일부터 3개월간, 수화중급반은 6월 18일부터 3개월간, 점자반은 수시로 모집한다. (02)720-4528

△국산업력관리공단과 함께 주부·준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간병인 교육을 6월 8일~12일 실시한다. 접수마감은 6월5일. (02)203-3677

△간병 자원봉사자 교육생=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윌주)은 6월 2일~7월 7일(매주 화·수) 재단 강의실에서 제16기 간병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 선착순 35명 모집. (02)723-5101

△노인주간보호소 이용자=육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6월10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5시 노인주간보호소를 개소한다. 65세이상 신체허약 및 거동불편 노인. 만성 노인성 질병(전염성 질병 제외)의

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면 신청 가능. (02)282-1100

△부전스님=영동 중화사(주지장산)는 부전스님을 급히 구한다. (0414)42-2057

△어린이집 교사=광명선원에서 운영하는 구립 사당어린이집에서는 신심깊은 교사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명이며, 유아교육학과 졸업자로 오는 30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02)584-1108

화족

△김채(前 주간불교신문 상무)씨 차녀 이진씨가 이강길씨와 24일 상례제례당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통신강의 테이프 판매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어려운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전문적인 불교 공부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 테이프를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테이프 목록 ◆◆

법계 개승집. '멋대로 부른 노래'. 산거스님(淨宇)스님의 설법개승집 ①. 속이 답답하신 분은,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분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시는 분은,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분은, 아직도 불교의 속뜻을 모르시는 분은, 이 책을 보십시오. 170쪽/값 4,000원. 그저 심심풀이로 한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는 책이 되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노래를 서너번이라도 읊조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산거지(淨宇) 합장-

젊은 佛子여 내일을 열자!!! - 믿음 기술 자금으로 2001년 主人公이 되자 - 자연계는 섭리세계(攝理世界)의 레도이탈(軌道離脫)로 혼돈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인간생활은 자기 부정(自己否定)의 극한상황 속에서 생존경쟁으로 빚어진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황량(荒涼)한 생명의 여백(餘白)을 믿음을 통한 인성회복(人性回復) 노작생활(勞作生活)을 통하여 기술습득과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36개월후 당당하게 내일의 주인공으로 출사(出師)코져 한다. ◆ 참고 사항 ◆ 1. 불자가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호국영령의 자손 가운데 공업고(工業高) 수료와 병역의무를 필한다. 2. 36개월 공동생활 장소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1,350평 위에 4개동의 건물 준비 3. 원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수료, 고회를 맞아 평생의 숙원을 결실코자 함. 4. 통신연락은 팩스(FAX): 02)925-1661로 가능하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팩스접수후 회신함. 1998년 5월 忠孝文化院